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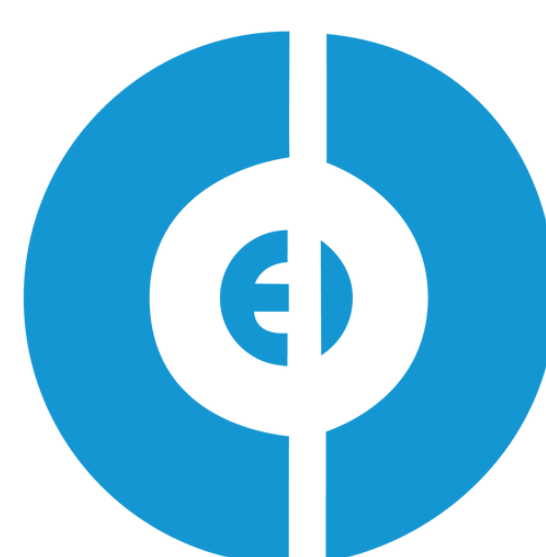


ANNUAL REVIEW

2025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 ANNUAL REVIEW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Table of Contents

03 발간사

08 상반기 주요활동

24 하반기 주요활동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5 리뷰」를 발간하면서



2025년 초 미국 정부의 외국원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일시적 중단 조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USAID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의 축소와 재편은 국제 협력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기구와 협력 파트너들에게 기존 협력 방식과 성과를 재점검하고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도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역량 강화를 핵심 사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는 국제적 자원 환경 변화와 사업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협력센터는 증거 기반 통계 생산, 국제 기준의 지역 국가내 이행 지원,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19건 이상의 주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성별 기반 폭력과 여성살해(Femicide)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통계와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한 해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의 시범 이행을 피지와 몽골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워크숍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체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협력센터는 제56차 유엔 통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인신매매 행정자료 국제분류표(IC-TIP) 채택, SDG 16 이행을 위한 데이터 및 지표 발전 논의, 부패 및 여성살해 통계 방법론 개선 등 글로벌 범죄통계 분야의 주요 논의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의 참여는 협력센터가 향후 국제 기준과 정합적인 협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형사사법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2025 리뷰」를 발간하면서

또한 지역 최초 UN-CTS 국가 총괄 담당자 회의, 필리핀·몽골·피지 등 국가별 기술협력, 그리고 한국의 주요 연구·개발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범죄통계 커뮤니티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UN-CTS와 ICCS를 중심으로 한 통계 프레임워크는 국가 간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협력센터는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5년은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환경, 특히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2025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협력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국가 전문가 회의와 국제 논의를 통해 향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표준화된 측정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교정통계, 범죄피해조사, 디지털 전환과 형사사법 데이터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센터의 활동은 범죄 및 형사사법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협력센터가 국제 기준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한 한 해였습니다. 본 연례보고서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통계 기반 정책 지원과 국제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장 최종희

Photo Gallery



2025.1.13-17.
피지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사업 2차 회의 개최



2025.3.4-7.
제56회 유엔 통계위원회 회의 참가



2025.3.26.
몽골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사업 온라인 회의 개최



2025.4.28.-5.1.
필리핀 ICCS 이행 강화 및
교정 데이터 시스템 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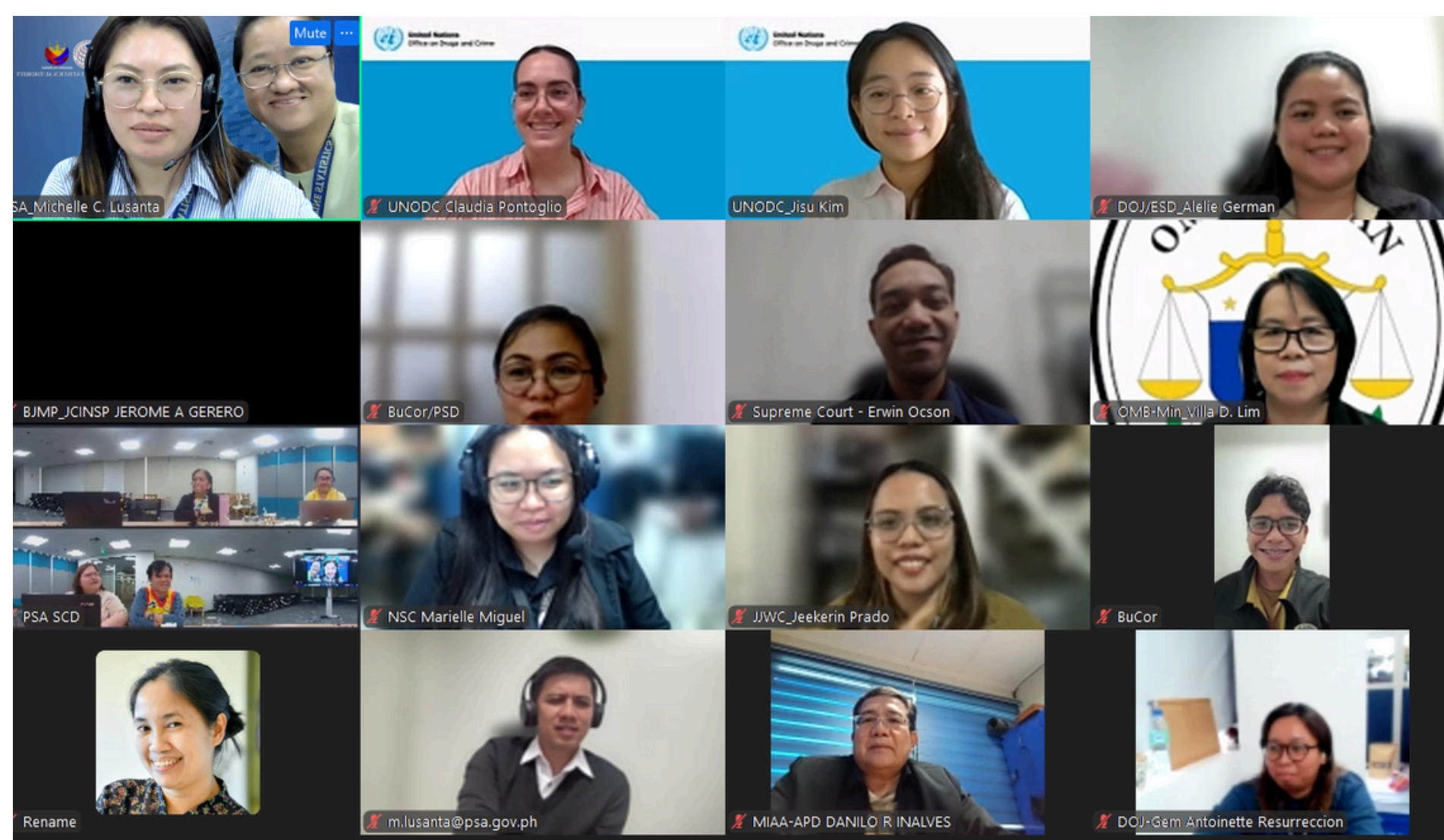


2025.6.10-13.
UN-CTS를 통한 동남아·동아시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협력 강화



2025.6.25.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국내 전문가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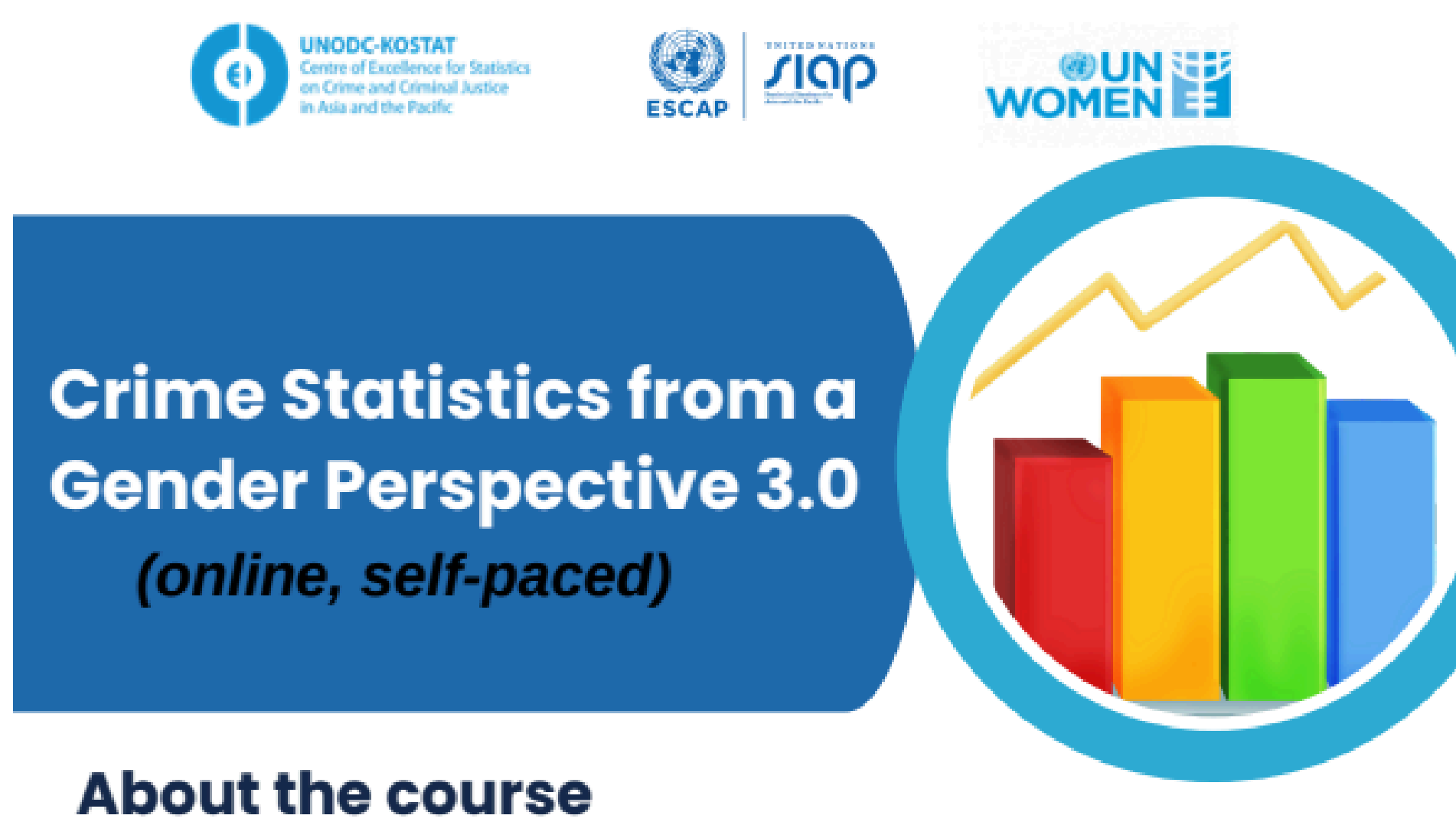
Photo Gallery



2025.7.3.
필리핀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5.7.15-17.
여성살해 및 기타 여성폭력
측정을 위한 글로벌 회의 공동개최



2025.8.28-10.3.
성인지적 관점의 범죄통계
e-러닝 과정 3.0 운영



2025.9.8-12.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방한 연수 지원



2025.9.22-25.
태평양 지역 내 ICCS 및
CVS 이행 훈련 개최



2025.9.24.
싱가포르 교정청 주최 2025 ICLP
교정통계 세션 진행

Photo Gallery



2025.9.26.-10.1.
피지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현대화를 위한 기술 회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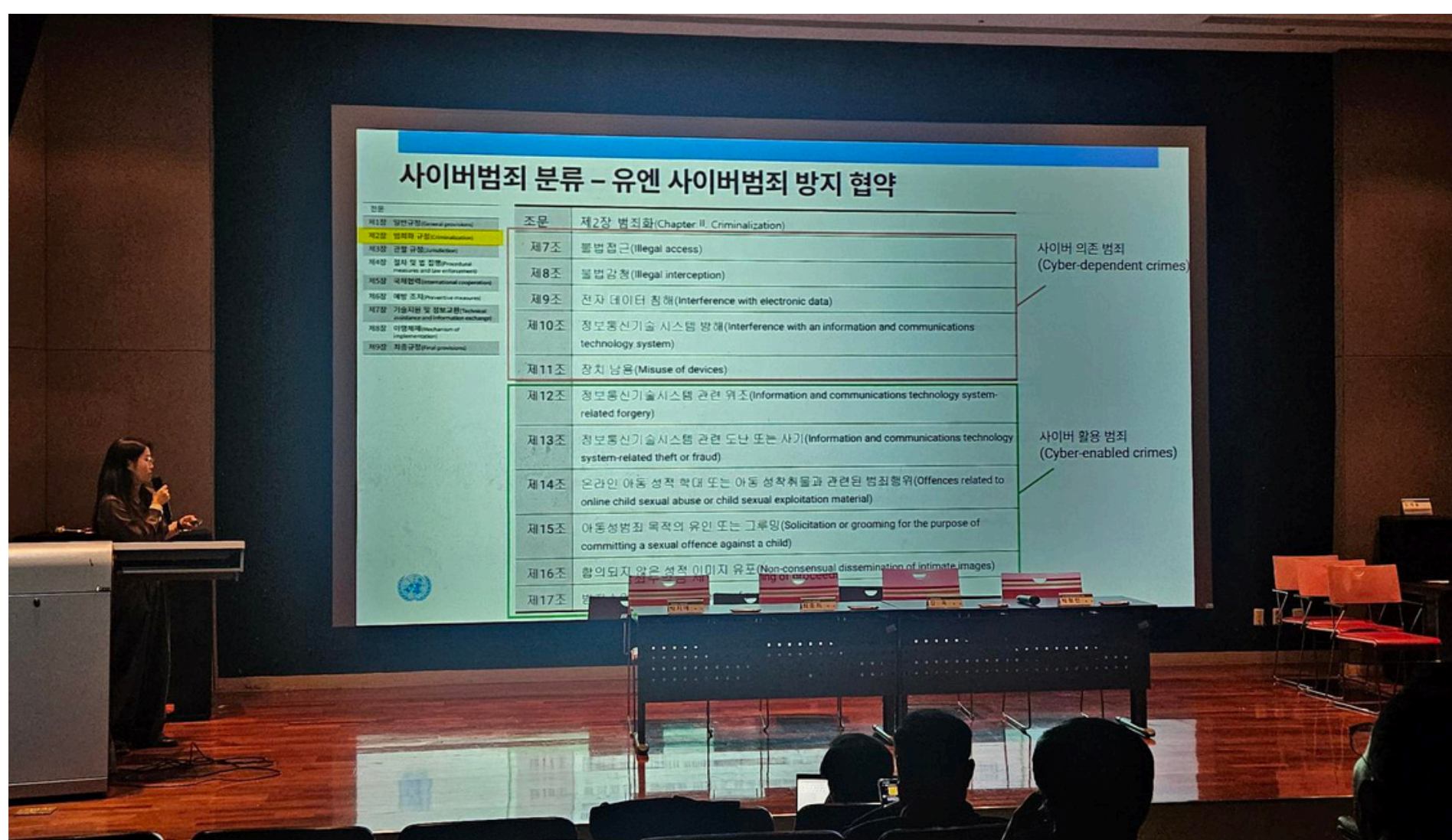
2025.10.25-26.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 참석



2025.11.4-6.
ICCS 글로벌 전문가 회의 개최



2025.11.12-15.
ASC 제 80회 연례학술대회
사이버범죄 측정 라운드테이블 진행



2025.12.11-12.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시범 이행 및 국제표준범죄분류 워크숍을 통한 피지의 여성폭력 대응 강화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지난 2024년 3월 개시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13일 피지 수바에 위치한 피지 통계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여성살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예방 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회의는 피지 통계청 Kemueli Naiwam 수석통계관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Marie Pegie Cauchoi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가 갖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착수 회의의 예비 결과 공유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피지 현지 맥락에 맞는 데이터 수집 흐름도를 작성하고 여성살해 통계 측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식별하는 그룹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 사법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살인 사건 신고부터 정부의 범죄 통계 산출에 이르는 과정을 도식화하며, 기관 간 데이터 격차를 확인하고 수집 및 보고 절차의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기소 정책(No-drop policy)'에도 불구하고 사건 보고가 누락되는 현실이 주요 도전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소통 강화와 역량 개발 방안이 함께 모색되었습니다.

이어 협력센터는 피지 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이틀간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ICCS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범죄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개발한 핵심 도구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견고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워크숍 첫째 날, 피지 형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은 ICCS의 핵심 원칙을 학습하고 피지 국가 범죄분류 체계를 ICCS에 매핑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사법 통계 수집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기관별 분류 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통계 불일치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범죄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세분화 변수(disaggregating variables)의 역할과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강사진은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가 ICCS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젠더 관점을 반영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살인 사건의 성별 동기(Gender Motivation)를 보다 정확히 식별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더 정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가 차원의 국제표준범죄분류 이행 로드맵을 검토하고, 경찰·법원·피지 통계청 등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29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ICCS이행과 데이터 제출 절차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관 간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으며, 정확하고 포괄적인 범죄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와 워크숍은 피지의 여성살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여성과 소녀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56회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글로벌 법치와 정의구현을 위한 데이터 강화

2025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제56회 유엔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통계위원회 회의는 국가 및 국제 통계 기관, 전문가,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 통계의 글로벌 표준, 방법론, 데이터 수집 전략을 논의하고, 글로벌 통계 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고무적인 성과 중 하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제이주기구(IOM)가 공동 개발한 '인신매매 행정 데이터 국제분류기준(IC-TIP)'의 채택입니다. 국가 간 인신매매 데이터의 조화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분류 체계의 이행 계획(교육 및 기술 지원 포함)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국제이주기구가 관리 기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은 본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의지를 표명하며,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원을 위한 데이터 및 지표 발전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SDG 지표 관련 기관 간 전문가 그룹(IAEG-SDGs)의 성과를 인정하며, 데이터 격차 해소와 글로벌 지표 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리공간 데이터 활용, 데이터 세분화, 역량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참여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역 개발 측면에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통계 시스템 현대화와 지역 간 협력 증진 성과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환경 및 기후변화 통계 강화, 지리공간 데이터 통합, 국가 인구조사에서의 혁신적 접근법이 강조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패 데이터 수집 방법론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 설계와 방법론의 혁신이

필요하며,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는 리스트 실험 등 혁신적 기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숨겨진 집단 표본 추출, 데이터 수집과 공개의 투명성 확보가 정책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기간 중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되었습니다. 부패 통계 관련 부대행사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 확보와 제한된 데이터 수집 자원의 활용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청의 역할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관련 부대행사에서는 자원봉사 국가들의 프레임워크 이행 진행 상황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데이터 격차와 기관 간 협력 강화 필요성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Data for Now” 이니셔티브 역시 소개되었으며, 국가 통계 시스템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지리공간 데이터와 행정 자료 등 대체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 개선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인신매매, 부패, 여성살해(Femicide), 기타 범죄 통계 관련 협력센터의 프로젝트 현황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방법론 도구 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표와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유엔 여성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역 및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센터의 국가 역량 강화와 정책 연계 데이터 지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56차 UNSC 회의는 글로벌 범죄 통계 협력과 SDG 16 이행 지원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IC-TIP 채택, SDG 관련 데이터·지표 발전, 부패 및 여성살해 측정 방법론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협력센터는 향후에도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 데이터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몽골, 여성 살해 대응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워크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성 살해 사건의 규모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Femicide/Feminicide) 시범 이행을 위한 두 번째 회의가 2025년 3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는 성별 기반 폭력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회의는 협력센터와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가 몽골 범죄 예방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of Mongolia)와 협력하여 공동 주최하였으며, 몽골 내 프레임워크 이행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는 몽골 범죄 예방 조정위원회 범죄예방조정국장 Odmandakh Banzragch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몽골사무소 Duc Long Nguyen 책임관은 여성살해 통계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성별 관련 살해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몽골 내 다양한 범죄 유형을 이해하고 폭력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프로그램 책임자 Sujung An은 Vu Phuong Ly 센터장 대리의 메시지를 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몽골 내 고의적 살인 및 여성살해 관련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기관별 현황과 주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이해관계 기관으로는 국가경찰청, 국립법의학청, 검찰청, 법원 및 사법위원회, 국가통계청 등이 포함되었으며, 각 기관의 형사절차와 단계별 통계 산출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예비 결과를 검토하고 검증하며, 직접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는 실습을 통해 기관별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 젠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 프레임워크 분석 변수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참여형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몽골 내에서 프레임워크의 핵심 및 분석적 세분화 변수와 연계하여 수집되는 데이터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기관 내 데이터 수집 현황을 업데이트하거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로 법적·통계적 성별 관련 살해 정의 부재, 문화적 낙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 원격 지역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여성 폭력이 과소보고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주로 여성살해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성별 기반 폭력을 넘어섭니다. 핵심 및 분석적 세분화 변수는 범죄 패턴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조직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기반 폭력 등 다른 범죄 행태 이해를 지원합니다. 이는 부패, 불법 약물 사용, 국제적 조직범죄 등과 성별 기반 폭력이 교차하는 몽골의 현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회의는 국가 기관, 법 집행 기관, 국제 파트너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여성 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몽골은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별 기반 폭력 대응 역량 강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몽골이 국제 기준에 맞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및 글로벌 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내 주요 파트너와 범죄 통계 및 연구 협력 강화

최종희 센터장과 김지수 통계관은 협력센터를 대표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국내 기관 및 국내 주재 국제 기구와의 업무 협력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 거버넌스 센터 (UNPOG),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 동북아 사무소, 총 4개 기관을 방문하여 지역 내 범죄통계 생산 및 작성 지원,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지표 측정 강화를 위한 신규 파트너십 확장과 공동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사이버범죄 및 범죄피해조사 공동 연구 의제 논의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는 아래 두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UN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적용 타당성 및 국가 사례를 분석하는 공동 연구입니다. 한국 사례를 시작으로 사이버 범죄 관련 제도적 기반과 관련 통계 생산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범용성 있는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 범죄피해조사 역량강화 사업 개발입니다. 한국의 다년간의 범죄피해 가구조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 및 정례화 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 내 표준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하여 2025년 범죄피해조사 팀과의 실무 회의에서는 역내 범죄피해조사 실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방법 및 결과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 SDG 16 지표 요약 보고서 작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 범죄피해조사에 한국범죄분류(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KCCS) 적용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방안 모색

한국국제협력단 회의는 협력센터를 통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KOICA사업 참여, 국내 기관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국가데이터처 등)과 공동 제안서 작성 등의 가능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단 홍석화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현재 마약류 범죄 및 남·북한·동북아시아 지역의 치안 대응 등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이 표명되었습니다. 홍 부총재는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지속성의 명확한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지역 사무소와 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간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SDG 16 관련 역내 협력 확대

협력센터는 SDG 16(평화·정의·제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인천) 및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방문, 회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SDG 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 발전포럼(APFSD)에서 SDG 16이 주요 주제로 선정될 경우 협력센터가 범죄·정의 통계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교육 세션을 진행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유엔 거버넌스 센터와는 연례 지역 심포지엄에서의 참석 및 부대행사 개최, SDG 16청년프로그램(SDG Youth Contest) 협력 등 다양한 기회를 검토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이번 회의는 협력센터가 역내 범죄통계 및 형사사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양자 협력 강화, 국제협력단과 사업 참여 기회 모색,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유엔 거버넌스 센터와의 파트너십 개발 등을 통해 협력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통계 및 정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SDG 16 달성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생산 및 활용 능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내 국제표준범죄분류 이행 강화와 교정 데이터 시스템 개선 지원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협력센터는 필리핀 범죄통계 개선 및 교정 데이터 관리 고도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의 투명성, 효율성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UNODC 필리핀 국가 사무소의 요청으로 협력센터 김지수 통계담당관이 참여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통계 체계 구축과 수감기관 데이터 생산 및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필리핀의 국제표준범죄분류(ICC) 이행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교정국, 내무부, 법무부, 경찰위원회, 경찰청, 국가수사국, 통계청, 필리핀 국립대학 법센터, 마약청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표준범죄분류개정, 법무부 통합 사건기록 시스템 개선 등에 국제표준범죄분류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필리핀 교정국 및 교정관리국과의 회의에서는 UNODC 필리핀 국가 사무소와 협력센터가 함께 개발한 수감자의 수감 기간 계산 자동화 도구가 소개되었습니다. 필리핀 교정의 수감자 정보는 교정관리국의 사건기록 시스템과 교정국의 통합 데이터 포털 (One BuCor Portal) 등의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수감기간 공제 제도(Good Time Allowance) 관련 모듈은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가 존재함에도 담당 교도관들이 수감기간을 수기로 작성 및 계산해야 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하게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 사무소와 협력센터는 공동으로 수용자의 형기 감축 계산 (Time Allowance Calculator)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동화 도구는 현재 일부 교정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현장 담당자들의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석방일 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화 도구의 효과는 형기가 만료된 많은 수의 수감자가 석방되는 등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협력센터와 필리핀 정부기관은 이번 임무를 계기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그간 제출되지 않았던 필리핀의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조사(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이하 UN-CTS) 작성을 위한 국가담당자와 연결되었으며, 해당 담당자를 향후 예정된 지역 회의에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범죄통계 생산 기관을 대상으로 한 ICCS의 확대 도입과 범죄 피해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필리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UN-CTS를 통한 동남아·동아시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협력 강화

협력센터는 2025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이하 UN-CTS) 국가 담당자 대상 지역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UNODC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공동 주최했으며,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의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 UN-CTS 참여 국가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동티모르 등 총 10개국 국가 담당자와 아세안 사무국 통계 부서 SDG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공동주최 기관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범죄통계 생산 우수사례 공유 및 범죄통계 담당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NODC 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소장 Erik van der Veen은 사이버범죄 등 변화하는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해 강력한 데이터 기반 및 표준화된 진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부수석통계관 Sonny Harry Budiutomo Harmadi은 본 회의가 국제 기준에 맞는 범죄통계 생산을 위한 국내 기관 및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 UN-CTS 및 ICCS 프레임워크 실무 이해 강화

먼저 참가자들의 UN-CTS에 대한 이해 및 작성 방안에 대한 세션이 김지수 통계관과 Claudia Pontoglio 연구관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및 자료 개요, 주요 데이터 생산 기관, 행정자료 작성 및 통계 생산, 범죄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 UN-CTS와 국제표준 범죄분류(ICC)의 목적과 필요성, 상세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이후 UN-CTS의 6개 모듈에 대한 개별적 소개가 각 메타데이터 파일 작성 방안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UN-CTS 가 다루는 범죄에 대한 통계적 정의, 사건·범죄·피해자·가해자 단위의 측정 방식, 주 작성 기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과 실습을 통해 범죄통계 작성 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 즉 자료 분산, 기관 간 정의 차이, 법적 체계 차이를 공유했습니다. ICCS는 이러한 차이를 연결하고, 국가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범주로 분류하는 실용적 도구로 재강조되었습니다.

• 국가별 경험과 공유 목표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험과 정책 사례들 또한 공유됐습니다. 캄보디아 통계청은 범죄피해조사 경험을 공유하였고,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9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 범죄통계를 집계 및 보고서 발간 체계를 소개하였습니다. 중국은 법원 통계의 국제표준범죄분류 도입 및 국가통계국을 통한 범죄 데이터 공개 노력을 발표하였고,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 도입을 통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 단일 범죄통계 데이터(Single Data on Crime Statistics)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동티모르는 ICCS 채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필리핀은 경찰범죄 기록의 ICCS 도입, 통합 범죄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형사사법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통계청과 해양경찰청 공동 작성한 한국범죄분류 활용 해양범죄 통계 생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몽골은 고의적 살인과 성범죄 통계 및 작성 과정을 소개하며 세부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태국은 교정 통계를 활용한 교도소 관리와 정책 개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각국의 상황과 경험이 다양함을 확인했으며, 기관 간 협력 강화, 데이터 품질 및 비교 가능성 제고, 통계가 정책 및 공공책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UN-CTS가 단순히 통계를 수집하는 도구가 아닌, 국가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 개선 및 형사사법 통계 생산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쓰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강력한 지역 범죄통계 커뮤니티 구축을 향하여**

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UN-CTS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지역 범죄 통계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공동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가별 제출 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협력센터,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국내 전문가 회의 개최

사이버범죄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엔총회는 2024년 12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이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의 가용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업무에 속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협력센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과 협력하여 2025년 6월 25일 서울에서 국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정부, 학계,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사이버범죄 통계 수집 현황을 검토하고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석 기관으로는 경찰청, 대검찰청, 통계청, 연구기관, 그리고 토스뱅크(주), 쿠팡(주), (주)S2W 등 주요 민간 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의는 최종희 협력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데이터 기반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협력센터 박지애 통계담당관이 프레임워크 개발의 목표를 소개하고, 여성살해(femicide) 및 부패(corruption)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를 활용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관련 경험과 접근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기관 대표들은 사이버범죄 측정에 대한 기관별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위협의 특성과 기존 통계 도구로 이를 포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청은 현행 사이버범죄 분류체계를 소개한 후 해당 체계의 구조와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토스뱅크(주), 쿠팡(주), (주)S2W가 각 기관의 사이버범죄 대응 방식과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며, 현재 보고체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욱 경찰대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범죄 정의 및 측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정의의 불일치, 분산된 데이터 시스템,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등 공통적 도전과제가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이버범죄 유형, 민간 데이터의 통합 방안, 프레임워크 목적과 연계된 명확한 통계 정의의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측정 가능한 지표뿐 아니라 향후 포함되어야 할 잠재적 지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센터는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의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UN-CTS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고도화

필리핀 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협력센터는 2025년 7월 3일,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강화를 위해 국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수사·사법·교정 분야의 주요 기관 약 35명이 참석하여,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조사(UN-CT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6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역내 국가 총괄담당자 회의에서 필리핀 통계청이 UN-CTS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필리핀의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생산·협력·활용을 개선하려는 공동의 의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개회 발언에서 필리핀 통계청은 UN-CTS 국가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필리핀의 공식 응답을 취합·제출하기 위한 조정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정부 기관 전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별 절차를 공유하며, 각 기관의 참여가 UN-CTS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리핀 국가 내 범죄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술 세션에서는 협력센터의 김지수 통계담당관과 Claudia Pontoglio 연구담당관이 UN-CTS의 구조와 국제 기준, 특히 범죄통계 목적의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와의 연계·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UN-CTS 모듈, 데이터 설문지, 메타데이터 파일을 단계적으로 안내하며, 기관 간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 방안과 정의 불일치, 분절된 데이터원 등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필리핀 정부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통계를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력센터는 필리핀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기관들이 범죄통계의 가용성·품질·활용도를 높이고 ICCS를 비롯한 국제 기준의 국내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살해 및 기타 여성폭력 측정을 위한 글로벌 회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별 관련 살해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는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엔 통계위원회는 각국의 성별 기반 폭력 데이터 시스템 강화를 요청하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성 인지적 범죄통계 체계 개발을 공식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여성 살해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가 마련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 발표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이 기준을 도입하여 성별 관련 살해 데이터를 개선해 왔으며, 다수의 국가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및 유엔 여성기구로부터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받으며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유엔 여성기구,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유엔마약범죄사무소-멕시코 통계청,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구 여성성평등 센터), 성평등통계 글로벌센터가 공동으로 글로벌 회의를 2025년 7월 15일에서 17일까지 빈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전문가 및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피지와 몽골은 협력센터의 지원과 함께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도입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한민국, 태국 등은 자국의 제도적·통계적 환경에 맞춘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젠더 관련 살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별 여성살해(femicide)에 대한 법적·통계적 정의와 국제 프레임워크 간의 정합성 확보, 범죄 발생 환경 및 맥락에 대한 세부 자료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기관, 사법기관, 보건부문, 법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데이터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지와 몽골은 공식적인 여성살해 정의가 아직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데이터 시스템과 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험도 논의된 바, 도미니카공화국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품질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 겪고 있는 자원 부족과 법적 기반 미흡 문제도 중요한 도전과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칠레는 납치(abduction) 등 복잡한 통계 변수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멕시코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의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민 참여 기반 데이터(citizen-generated data)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데이터 수집 방식도 소개되었으며, 성별 동기(gender motivation) 식별 및 범죄 맥락 변수 수집과 같이 복잡한 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자원 제한, 법적 인정 미비 등 도전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여성살해 통계를 개선하는 것이 성별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핵심 단계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유엔여성기구는 앞으로도 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기술 지원, 실무 지침 개발 등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에서는 프레임워크 이행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역내 협력을 확대하여 국가의 데이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보고 체계에도 기여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협력센터, 성인지적 관점의 범죄통계 e-러닝 과정 3.0 성공적으로 마무리

협력센터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원(UNSIAP) 및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 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와 협력하여 공동 개발한 “성인지적 관점의 범죄통계(Crime Statistics from a Gender Perspective)” e-러닝 과정 제3차 과정을 2025년 8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생산·분석·보급 역량을 강화하고, 성별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과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최신 방법론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개최된 1·2차 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과정은 범죄 및 성별 통계 분야의 최근 방법론적 발전을 반영하여 총 6개 모듈로 구성된 업데이트된 교육 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핵심 개념을 재조명하는 한편, 여성 살해(Femicide/Feminicide) / 여성대상 기술 매개 폭력(Technology-Facilitated Violence against Women, TFVAW)이라는 두 개의 신규 모듈을 추가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폭력 유형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응하였습니다.

• 대상 및 학습 방식

본 과정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에서 자료 수집, 생산, 분석, 보급을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성별 관련 범죄 지표의 방법론적 기반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SIAP의 e-러닝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온라인 모듈을 활용하여 성 개념과 분석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 다양한 자료원의 강점과 한계를 검토하며,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성별 관련 범죄 SDG 지표 산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토론 포럼을 통해 국가 및 기관 간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 학습의 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실무 적용 논의

자율 학습 모듈을 보완하기 위해, 총 3회의 전문가 주도 실시간 세미나가 진행되어 통계 도구와 프레임워크의 실제 적용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세미나는 SIAP의 Shailja Sharma 원장, 최종희 협력센터장, 그리고 UN Women의 황윤정 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SDG 모니터링을 위한 성인지적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희 센터장은 범죄통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각 기관 및 센터 간 지속적인 협력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 ICCS와 범죄피해조사의 실제 적용 사례

첫 번째 세미나는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와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 CVS)의 실제 적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수 사례와 교훈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의 박성훈 범죄통계 연구센터장과 태국 사법연구원의 Sudarak Suvannanon 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성인지적 범죄통계를 강화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논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의 실제 적용이 다루어졌습니다. 협력센터의 Claudia Pontoglio 연구관이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적 기반을 소개한 데 이어, 몽골 보호·안보연구소의 Chuluunbat Sharkhuu 소장과 UNODC-INEGI 협력센터의 Adriana Oropeza Lliteras 조정관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관점을 공유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기관 간 협력, 심화 학습, 그리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여성대상 기술 매개 폭력(TFVAW) 측정 과제

세 번째 세미나는 많은 국가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여성대상 기술 매개 폭력(TFVAW)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 국가위원회의 Sondang Frishka 위원과 한국 경찰대학 여성·아동폭력연구소의 한민경 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UN Women이 사회를 맡아 온라인 및 기술 기반 폭력의 개념적·측정적 과제와 국제적 지표 개발 노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 향후 계획

본 과정은 개념적 이해와 실무 적용 도구를 결합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범죄통계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협력센터는 향후에도 UNODC, SIAP, UN Women 및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별 관련 SDG 목표 이행과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고품질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의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보안 관련 방한 연수 지원

2025년 9월 8일에서 12일까지,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cy, 이하 SPP)과 베트남우정통신그룹(Viet 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이하 VNPT) 고위급 대표단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 및 사법부 사이버보안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협력센터는 한국 내 관계기관 섭외 및 프로그램 조정 등 이번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베트남 사법 부문이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SPP는 업무 현대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한 기술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한국 연수는 VNPT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초기 공동 노력으로, SPP 소속 5명과 VNPT 소속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협력센터에서는 박지애 통계담당관이 한국 내 주요 기관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 일정에 동행하여, 한국의 디지털 사법 시스템 및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전체적인 흐름과 구체적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일간의 일정 동안 대표단은 다양한 한국 기관을 방문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였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은 한국 사법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으로, 대표단은 대검찰청에서 KICS가 검찰의 업무 흐름, 사건관리, 기관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공유 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정·법적 기반,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의 전환 등 제도적·운영적 요소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 시스템과 KICS와의 연계 방식 설명과 더불어,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KICS 유지·관리 체계와 민간 개발사와의 협업 구조를 살펴보고, VNPT가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분야 역시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I)은 한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에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실시간 위협 탐지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디지털 전문은행으로서 혁신과 강력한 사이버보안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까지 포함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KISA)을 방문한 대표단은 국가 사이버보안 통합관제센터를 살펴보고, 한국이 사이버 위협을 모니터링 및 대응하는 방식과 국제적 역량강화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는 다층적 접근방식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범죄 및 피해자 조사 통계 생산 방식과, 단일 통합 플랫폼 형태의 범죄·형사사법 통계 시스템 운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기반한 통계 품질 및 비교 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베트남의 데이터 수집 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대표단과 협력센터 간 양자 회의가 진행되었고, 최종히 협력센터장은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이행, 피해자 조사, 사이버범죄 측정 신규 이니셔티브 등 아·태 지역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양 측은 디지털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갖춘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통계 역량강화 및 지역 협력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에게 기관 간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협력센터 또한 법·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기관 간 협력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향후 사이버범죄 측정 체계 발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 결과는 향후 하노이에서 개최될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 준비와 더불어, 비교 가능하고 근거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태평양 지역 내 국제표준범죄분류(ICC) 및 범죄피해조사(CVS) 이행 훈련

협력센터는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 SPC)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ROSEAP)와 협력하여 2025년 9월 22일에서 25일 까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와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 CVS) 지역 훈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있어 표준화된 통계 분류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조화된 방법론의 이점을 소개하는 한편, ICC와 CVS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워크숍에는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9개 태평양 도서국의 통계청과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이번 훈련이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센터가 개최한 첫 대면 활동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대면회의를 통해 참가국 간 심도있는 논의와 즉각적인 소통 및 실습중심의 상호학습으로 훈련의 실효성과 협력효과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년간 온라인 방식으로 지원해 온 이후 이번 훈련을 계기로 참가국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보다 긴밀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한 9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ROSEAP 및 SPC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이번 훈련이 향후 기술적 역량 강화와 지역 협력 증진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니터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4일간 진행된 워크숍은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구성되었습니다. SPC는 부패와 같은 범죄 유형에 대한 지역 내 용어 부재, 데이터 격차 등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훈련 내용이 지역적 맥락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ICCS의 구조와 활용, UNODC의 관련 도구, 표준화된 범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각국의 법적 조항을 ICCS 범주에 매핑하는 실습을 통해 기관 간 분류의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세션에서는 세분화된 변수 및 ICCS 이행 로드맵,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측정도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하며, 방법론적 고려사항과 데이터의 출처,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SDG 모니터링 및 정책 개발과의 연계성을 논의하였습니다. 각국은 ICCS 이행을 위한 초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피지는 기관 간 실무그룹을 구성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UN-CTS 및 UNODC의 마약 관련 데이터 도구, 그리고 CVS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CVS가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범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임이 강조되었으며, 설문지 설계, 조사 기획, 표본 설계, 현장조사 운영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뉴칼레도니아가 자국의 CVS 수행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면접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소규모 인구를 가진 태평양 도서국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범죄 통계의 국제표준 분류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며, ICCS 및 CV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습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가국들은 소개된 도구의 자국 적용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ICCS 및 CV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지역 전문기관인 SP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2025 ICLP 싱가포르: 증거 기반 교정행정 및 교정통계 강화

인도적인 처우와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보장된 교정행정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5년 9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교정청(Singapore Prison Service, SPS)이 주최한 2025 국제교정지도자프로그램(International Correctional Leadership Programme, ICLP)에서 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ICLP는 싱가포르 교정청의 대표적인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로, 아·태 지역의 고위급 교정 분야 지도자들이 지식 공유, 리더십 강화, 혁신적 재활·사회복귀 정책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행사입니다. 올해의 5일간 프로그램은 주제별 토의, 리더십 연수, 주요 교정시설 방문 등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의 '스루케어(throughcare)' 모델과 기술 활용, 지역사회 협력, 재활 중심 접근을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9월 24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정시설 관리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개발(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on Prison Management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세분화된 데이터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기반의 교정개혁을 촉진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논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이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 파악, 투명성 제고, 재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재활 전략 수립에 핵심적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OSEAP)의 Aki Okanan범죄예방·형사사법 담당관, 협력센터의 박지애 통계담당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필리핀 사무소의 Ian Niccolo Tobia 국가프로그램 담당관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만델라규칙',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등 주요 국제 기준과 도구를 소개하고,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교정 데이터 시스템 강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이어가며 각국의 교정시설 운영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참가국은 교정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향상의 수단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 도입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 아·태 지역에서 데이터 기반 교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싱가포르 교정훈련원을 방문하여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훈련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싱가포르 교정청의 교육·훈련 접근방식이 현장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ICLP 2025 참여를 통해 협력센터는 교정 분야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의의와 교정 관련 통계의 일관성·비교가능성·체계적 생산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및 국가사무소, 역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정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아·태 지역의 근거 기반 교정개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추진 착수

협력센터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피지에서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의 소도서개발국 통계 지원 사업(Data for SIDS, DATAS)과 협력하여, 피지의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기술 회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표준범죄분류(ICC)의 국가 차원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도서개발국(SIDS)의 통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이 추진 중인 DATAS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피지는 2025년 1월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으며, 피지 통계청(FBOS)이 국가 차원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는 핵심 우선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지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 교정청 등 주요 형사사법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기관별로 분절된 데이터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준화된 통계 양식 도입, 전산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일관된 범죄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범죄 통계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경찰 접수 단계부터 기소, 재판, 교정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 기간 동안 협력센터는 관련 모든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다수의 양자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은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검토하고, 분류체계 조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사건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추적될 수 있도록 범용 사건 식별자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로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기관이 데이터 품질 향상, 기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근거 기반 정책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도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국가 ICCS 대응표 완성, 기관 간 공식 협력 협약 및 업무협약서 마련, 그리고 표준화된 범죄 통계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본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2026년에는 ICCS에 부합하는 국가 범죄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함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된 활동에는 교정청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입력 양식 설계와, 각 형사사법 기관을 대상으로 한 통계 생산 지침 배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력센터, 하노이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식 참석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초국경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을 위한 서명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조약으로, 155개국 이상이 참여한 3년간의 협상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 24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은 ICT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의존 범죄와 ICT를 통해 기존 범죄를 확대하는 사이버 활용 범죄에 대한 공통 법적 틀을 설정하고, 국제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협약 이행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회원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고, 이후 비준 및 수락 절차를 거쳐 40개국 이상이 당사국이 되면 협약이 발효됩니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식은 2025년 10월 25-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주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19개국 정부와 170여 개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2,500여 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이틀 간의 프로그램은 개막식을 거쳐 공식 서명 행사로 이어졌으며, 회원국들은 협약에 서명한 뒤, 각국 대표의 기조 발언을 통해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사 종료 시점까지 총 72개국이 협약에 서명하며,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센터는 이번 서명식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계적 관점을 논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희 센터장과 박지애 통계담당관은 협력센터를 대표하여,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초기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제55조에서 강조하는 국가 간 범죄 정보 교환과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서명식 기간 동안 협력센터는 사이버범죄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협력센터의 사이버범죄 관련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베트남 사무소, 도하 글로벌 사이버범죄 프로그램,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ROSEAP) 등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내 여러 사무소와도 함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센터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센터를 홍보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명식 다음 날인 2025년 10월 27일에는 협력센터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도하 사이버범죄 대응 지역센터와 공동으로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SPP)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9월 SPP의 방한 연수 이후 협력센터와 SPP 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력센터는 SPP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도하 사무소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협력센터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를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협력센터, 서울에서 열린 국제표준범죄분류(ICC) 글로벌 전문가 회의 개최

협력센터는 2025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의 이행을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통계청, 범죄·형사사법 기관, 학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ICC 이행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분류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CC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UNSC)에서 채택된 이후, 국가 간 범죄 통계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본 전문가 회의는 ICC의 국가별 이행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기술적 의견을 교환하며, 범죄 통계의 지역 및 글로벌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측정에 중점을 두고, ICC가 해당 영역을 측정하는 데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는지 여부 및 ICC에 기반한 별도의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는 대한민국 통계청 이명호 차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연구·동향분석국(Research and Trend Analysis Branch, RAB) Angela Me 국장, 최종희 협력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사들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고품질 범죄·형사사법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ICC의 역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초기 세션에서는 UNODC의 연구 활동, 협력센터의 역할과 임무, ICC의 구조와 활용 방식, 글로벌 이행 현황 및 관련 방법론적 도구와 지침이 소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ICC에 정합적으로 설계된 국가 분류체계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범죄통계분류(KCCS)가 ICC와 어떻게 연계되어 국가 내 기관 간 일관된 데이터 생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자동 분류 등 혁신적인 접근 사례도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경험을 여성살해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the Gender-Related Killing of Women and Girls)와 인신매매 행정자료 국제분류표(IC-TIP)등 ICCS 원칙을 기반으로 한 관련 통계 프레임워크의 적용 사례가 소개되어, 특정 정책 우선순위에 대응하면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이버 의존범죄와 사이버 활용 범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ICC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정의 및 방법론적 과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ICCS 이행을 위한 제도적 체계, 분류 매핑 작업, 대응표 검증,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연계 등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 또한 공유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의 국가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인 기술적 작업과 기관 간 협력, 정책 활용을 지원하는 대시보드 및 확산 도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측정과 ICCS 범주 및 지표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UNODC의 활동이 소개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보고와의 연관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ICCS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신규 범죄 유형, 횡단적 범주, 세분화 변수(disaggregating variables)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분류체계의 실무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 조화된 적용 방식, 분류 규칙의 정교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기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회의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은 향후 ICCS 글로벌 검토 과정과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ICCS 이행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협력 강화와 국제 범죄 통계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력센터와 UNODC는 향후 ICCS를 공통의 방법론적 기반으로 삼아, 사이버범죄 통계 프레임워크 초안을 완성하고, 지역 및 글로벌 전문가 회의 및 시범 국가 연구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센터, 미국범죄학회(ASC) 제80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사이버범죄 통계 논의 주도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는 “범죄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상(Criminology, Law, and the Democratic Ideal)”을 주제로 제80차 연례학술대회를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범죄학 학술대회 중 하나인 이번 학술대회에는 증거 기반 형사사법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교육, 정책, 실무 및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 가운데서도 사이버범죄가 주제별 패널, 일반 세션, 라운드테이블 및 포스터 발표 전반에 걸쳐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와 피해 양상을 분석한 혁신적인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며, 사이버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들도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세션에서는 온라인 환경, 일상활동 이론, 디지털 맥락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등 사이버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상황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음을 조명하는 한편, 그 피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신원 도용과 같은 사례에서 심각한 심리적 피해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박지애 통계담당관은 “사이버범죄 통계 구축: 글로벌 수요와 국가 차원의 접근”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주관하였습니다. 해당 세션에는 협력센터를 비롯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Alabama 대학교, John Jay 형사사법대학, Illinois 주립대학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세션은 최지선 박사(KICJ)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박지애 통계담당관이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협력센터의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해당 작업의 배경과 필요성,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및 국제 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와의 정합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종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각국이 신뢰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사이버범죄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공유되었으며,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지표 개발과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유형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향후 협력센터는 이번 미국범죄학회 연례학술대회를 통해 교류한 전문가들과의 후속 협력을 지속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사이버범죄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자문 및 시범 활동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며, 국제 비교 가능성과 국가 통계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지침으로서의 프레임워크를 더욱 정교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이행을 위한 교육

협력센터는 2025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이행을 위한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UNODC 연구·동향분석국(Research and Trend Analysis Branch) 및 협력센터, UNODC 걸프 협력이사회 지역사무소(OGCCR), 그리고 나이프 아랍 보안과학대학교(NAUSS)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ICCS 기초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UNODC가 추가로 요청받아 진행한 두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국가 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통계 개념과 분류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ICCS를 국가 및 기관 차원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ICCS 이행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교육 과정에서는 UNODC의 국제적 ICCS 이행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범죄 분류체계를 ICCS에 매핑(mapping)하는 방법과 기관 간 공통 로드맵을 수립하는 실무적 접근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사례와 실습을 통해 ICCS 이행 계획 수립 과정, 단계별 추진 전략, 그리고 국가 여건에 맞는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국제 보고와의 연계

본 교육은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번(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정의에 대한 접근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의 이행 모니터링과 ICCS의 연계성을 다루었습니다. 폭력, 사법 접근성, 부패 관련 핵심 지표 산출 과정에서 ICCS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으며, 최근 도입된 SDG 16 설문 이니셔티브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아울러, ICCS에 부합하도록 2017년 전면 개정된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UN Crime Trends Survey, UN-CTS)에 대한 국제 보고 체계도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SDG 및 신종 범죄에 대한 국제적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최신 범죄 통계 보고 체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형사사법기관 통계 생산 지침 소개

교육의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UNODC가 개발한 「형사사법기관 통계 생산 지침(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of statistical data by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이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지침은 경찰, 검찰·법원, 교정 등 형사사법 부문의 세 단계 전반을 포괄하며, 인력·자원, 범죄 통계, 직무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참가 대상 및 운영 방식

본 교육은 국가 통계청 및 경찰, 내무부, 법무부 등 법집행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생산 또는 활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아랍어 동시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강의, 실습, 소그룹 토의 등 대면 중심의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육에 앞서 참가자들에게는 자국의 범죄 분류체계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제가 요청되었습니다.

협력센터, 아산에서 국내 학계·실무기관과 협력 확대 및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

협력센터는 2025년 12월 11-12일 이틀간 국내 학계 및 실무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범죄학회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를 국내 연구자 및 실무자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향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2월 11일, 협력센터는 경찰대 기획협력과와 회의를 개최하고,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찰대는 경찰관 교육과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회의에서는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중요성과 국제 통계 기준을 관련 교육과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 기관은 기존 교육 과정 내에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관련 모듈을 포함하는 방안과, 필요 시 신규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오전에는 협력센터가 순천향대학교 드론시큐리티 전략연구소를 방문하여, 사이버범죄 측정 관점에서 드론 관련 범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습니다. 연구소장인 이병석 교수는 연구소의 설립 목적, 주요 연구 활동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학계·연구자·실무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논의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위험 요소, 디지털 보안 맥락에서 드론 관련 사건 및 범죄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향후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드론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분류체계 및 측정 지표 개발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협력센터는 “AI 시대 범죄예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된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첨단 기술과 보안 이슈, 범죄 분석 및 예방에 있어 AI와 데이터의 활용,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의 최신 동향 등 다양한 시의성 있는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국내 범죄학 연구자, 신진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협력센터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I·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과 미래 범죄예방 전략”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희 협력센터장은 협력센터의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어 박지애 통계담당관은 사이버범죄 측정을 위한 협력센터의 통계 프레임워크 개발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충남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프레임워크 개발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국가 참여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일정 이후 협력센터는 국내 협력기관 및 대한범죄학회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및 사이버범죄 통계에 관한 국제 기준을 확산하며, 역량 강화, 연구 교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범죄 측정 통계 프레임워크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 피해조사 및 통계 역량 강화

협력센터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주요 범죄 및 사법 통계 기관들과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국가 간 범죄통계 시스템 강화, 2026년 범죄피해 조사(CVS) 계획 수립,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조사 (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UN-CTS) 작성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필리핀 마약사용 가구조사 방법론, 조사 결과 공유 및 지역 내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필리핀 범죄통계분류를 검증을 위한 경찰 데이터 분석 및 공식 통계 생산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법·범죄 분류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논의

12월 16일, 필리핀대학교(UP) 법학센터 산하 정부·법제개혁연구소(IGLR)와의 회의에서는 필리핀 범죄지수 연구시스템(PCIRS)의 현황과 활용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UP 법학센터는 형사법을 기준으로 신규 입법, 개정된 법률에 국제범죄통계분류를 대응한 범죄 통계 분류 체계를 개발 및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으며, 법무부, 국가경찰위원회(NAPOLCOM), 필리핀 경찰(PNP) 등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형사사법기관 전반에서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석된 통계가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시범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과 동시에 특정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를 이용한 범죄 통계 생산 및 활용 방안에 대한공동 연구가 제안되었습니다.

• 범죄피해조사(CVS) 통합을 통한 조사 효율성 제고

같은 날 진행된 NAPOLCOM 범죄예방·조정국(CPCS)과의 회의에서는 2026년 실시 예정인 개인 안전, 범죄 두려움 및 폭력 관련 인식 조사와 범죄피해경험 조사의 조사 설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두 조사를 별도의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센터는 두 조사를 하나의 통합 조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통합 조사 방식은 표본 규모 확대, 조사 비용 절감, 자료 코딩의 효율화, 그리고 인식·피해 분석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NAPOLCOM은 해당 제안에 동의하며, 단 두 개의 분석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조건하에 통합 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경찰 범죄자료 접근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필리핀 경찰 위원회와 필리핀 경찰 간의 범죄자료 공유 체계 개선도 주요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찰 위원회는 경찰의 자문 기구이긴 하나, 범죄정보시스템(CIRAS)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범죄 동향 분석 및 증거기반 정책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2026년, 범죄예방 조정국의 범죄정보시스템 접근에 합의하였으며, 현재 MOU를 진행 중입니다. 조정국의 데이터 접근 권한은 보다 구체적인 경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주제로 한 데이터 분석 파일럿 연구가 제안되었으며, 2024년 또는 2025년 자료를 활용해 최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마약 사용 실태조사 및 지역 협력 확대 논의

12월 17일에는 필리핀 위험약물위원회(DDB)정책·연구·통계국(PSRSD)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PSRSD는 3년 주기로 수행되는 국가 마약사용 가구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가 예방·치료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DDB는 UNODC에 대해 마약 사용 실태조사의 표준화된 조사 방법론 개발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요청하였으며, 국가별 조사 메타데이터를 수집·정리한 지역 차원의 조사 카탈로그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 측정과 관련하여 DDB 및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의 참여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 UN-CTS 제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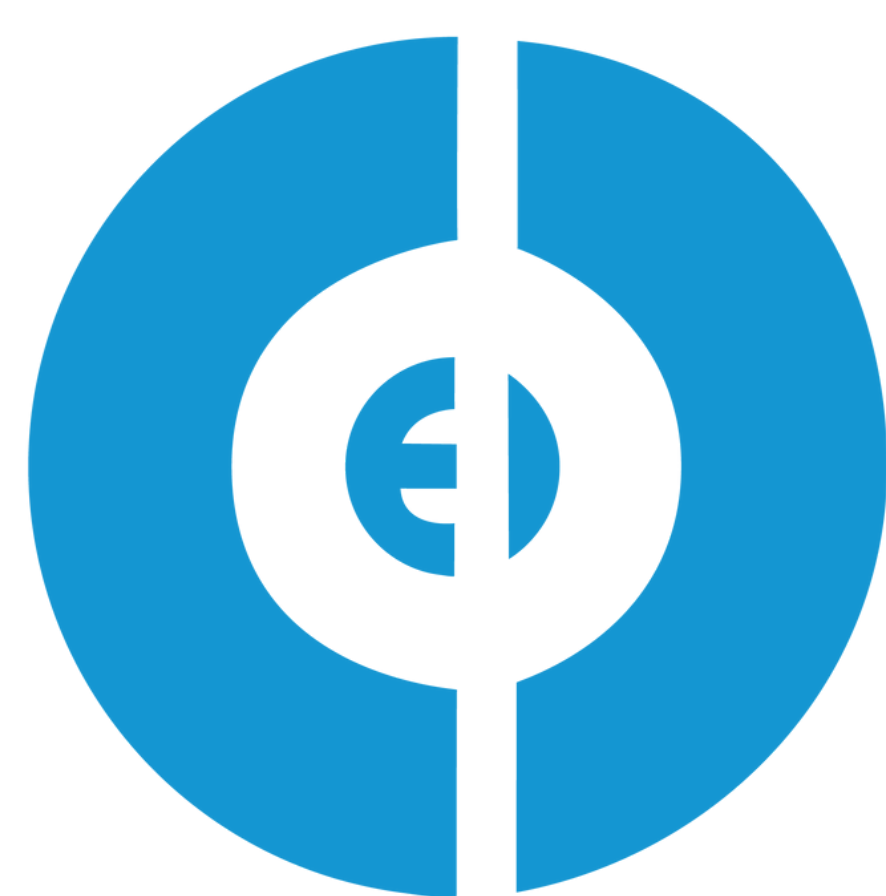
필리핀 통계청(PSA)과의 회의에서는 UN-CTS 자료 수집 및 제출 현황이 공유되었습니다. PSA는 전국 18개 자료 생산 기관을 식별·조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ICCS 기반 분류체계와의 불일치로 인해 경찰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센터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PNP 및 NAPOLCOM과의 공동 회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자료를 활용한 UN-CTS 제출을, 중장기적으로는 역할과 책임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향후 협력 방향

이번 미션을 통해 필리핀 관계 기관들은 사건 단위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연구를 2026년 1분기에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센터는 범죄피해조사 통합 설계 지원, 데이터 분석 개념서 작성, 그리고 마약 사용 실태조사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필리핀은 보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범죄·사법 통계를 구축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통계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UNODC-KOSTAT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sia and the Pacific

**Solid Data
Strong Policy
Safe Community**

coekostat.unodc.org